

영국서 끊이질 않는 ‘손흥민 이적설’

최근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이 올 여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를 떠날 거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토트넘의 부진이 시즌 내내 지속하면서 팀 내 주축 공격수인 손흥민 등이 떠나고 선수단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토트넘은 2024~2025시즌 EPL 14위(10승 4무 15패·승점 34)에 처해 있다.

다음 시즌 유럽 클럽대항전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카라바오컵(리그컵) 등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다.

유럽 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서만 유일하게 우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현지 언론은 다가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토트넘이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0년 넘게 토트넘 공격을 책임진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다루는 토트넘홉스퍼뉴스는 최근 손흥민과 작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2021~2022시즌 EPL 득점왕에 올랐으나, 최근 기량이 하락세라는 게 주된 이유다.

현지서 토트넘 떠날 거란 전망 쏟아져

토트넘 성적 부진...고액 연봉 등 변수로 작용



토트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 1차전 리버풀과 경기하고 있다.

손흥민은 2024~2025시즌 EPL에서 7골 9도움, 컵대회를 포함한 모든 대회에서 11골 12도움을 기록 중이다. 부진한 성적은 아니지만, 팀 내 고액 연봉자인 손흥민엔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

현지에선 손흥민의 대체자 찾기에 바쁘다.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트로이 사네,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쿨루아 등이

거론된다.

김민재의 동료인 사네는 뮌헨과 이번 시즌 종료 후 재계약하지 못하면 자유계약(FA) 신분이 된다.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어 토트넘엔 매력적인 대체자가 될 수 있다.

과거 맨체스터 시티에서 뛴 경험이 있어 EPL 무대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손흥민처럼 좌우 측면은

물론 최전방과 처진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사네는 이번 시즌 공식전 11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황희찬 동료인 브라질 국가대표 골잡이 쿠냐도 손흥민의 대체자로 꼽힌다. 지난 2월 울버햄튼과 새 계약을 맺었지만, 토트넘이 만족할 만한 이적료를 지불한다면 영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쿠냐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은 6200만 파운드(약 1780억원)로 알려졌다.

쿠냐 역시 울버햄튼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단 의지를 종종 피력한 상태다.

손흥민은 올해 초 토트넘과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 여름까지 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토트넘이 손흥민의 이적료를 조금이라도 챙기려면, 이번 여름이 마지막 매각 기회다.

토트넘이 선수단을 개편하려면, 손흥민과 같은 고액 연봉자 정리는 불가피하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근 BBC를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9 번째로 부유한 구단으로 평가받기에 더 많은 지출을 요구받는다”면서 “하지만 없는 돈을 쓸 수 없다. 구단의 재정적 안정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수단 변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



광주체육중학교 배드민턴부, 전국학생선수권대회 금·은4

광주체육중학교 배드민턴부가 지난 14일부터 6일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열린 '2025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 학생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순천시장배 생활체육 농구대회 성료

전국 23개 팀 270여 명 참가...전국 농구 동호인 열전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시체육회, 순천시농구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14회 순천시장배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전국 농구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틀간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모인 총 23개 팀, 270여 명의 농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농구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무

대로 자리매김했으며, 치열한 승부 끝에 ▲(남)클럽4부 팬텀(광주) ▲(남)45대부 금강BB(순천) ▲(여)클럽4부 WADE(창원)에서 각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개회식에는 정광현 순천시 부시장,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이 스포츠를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조순희 기자

김도영·박찬호 빠진 KIA, 김선빈마저 종아리 부상...선발 제외

내측 미세 손상 진단...2일 삼성전서 대타 대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엔 배테랑 2루수 김선빈이 종아리 부상을 당했다.

KIA 관계자는 2일 “김선빈이 검진 결과 왼쪽 종아리 내측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다”며 “심한 부상은 아니어서 대타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즌 개막 후 6경기에서 타율 0.435로 떨어진 타격감을 과시했던 김선빈은 지난달 28일 대전 한화 이글스와 경기에서 종아리에 통증을 느껴 6회 교체됐다.

이후 지난달 29일과 30일 한화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고, 2경기 모

두 대타로 출전했으나 수비에 입각한 못했다.

김선빈은 2일 홈에서 치르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도 득점 찬스 때 대타로 한 타석만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KIA는 김선빈만 부상으로 빠진 것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도영과 지난 시즌 골든글러브 유격수를 수상한 박찬호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김도영은 지난달 22일 안방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



을 당했다. 다음 주 재검진을 받은 뒤 정확한

복귀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는 지난달 25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1회 2루 도루를 시도하던 중 오른쪽 무릎에 큰 충격을 받았다. 병원 정밀 검진에서는 염좌 소견이 나왔다.

이후 재활에 전념한 박찬호는 2일 KT 위즈와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서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박찬호는 몸 상태에 별 문제가 없다면 5일 LG 트윈스와 경기에 앞서 1군 엔트리 등록될 전망이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불법 촬영기기 점검

전라남도도는 오는 4월 개최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경기장 불법 촬영기기 이른바 ‘몰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 20개 시군 대축전 담당부서, 시군 경

찰서 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대축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20개 시군 57개 경기장 편의 시설(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27일 대축전 종료 시까지 지속해서 실시한다.

/김 호 기자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